

‘위드 코로나’ 올 겨울 아우터 패션 편안함은 기본, 짧거나 아예 길거나

삼성물산 패션부문

아우터 길이 전반적으로 짧아져
골반 위 기장 푸퍼·피코트 인기
발목 기장 오버사이즈도 강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사무실 출근과 외출, 모임이 늘면서 아우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17일 삼성물산 패션부문에 따르면 올 겨울에도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컴포트(편안한)’ 스타일링 트렌드는 계속된다. 소위 집콕 패션으로 불리던 원마일 웨어에서 벗어나 좀 더 갖춰 입고 싶은 욕구가 반영됐으나, 여유로운 편안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아우터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신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패딩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넉넉한 핏의 코트가 주를 이룬다.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우터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졌다는 것이다. 가을에는 크롭 재킷과 보머가 주목받았다면, 겨울에는 골반 위 기장의 푸퍼와 피코트 같은 아우터가 인기다.

동시에 넉넉한 실루엣도 사랑받는



구호 21FW ‘로브 핸드메이드 코트’ 제품 이미지. /삼성물산 패션

다. 몸을 꼭 감싸는 형태에 소매는 손등을 덮고 기장은 발목까지 올 정도의 오버사이즈 아우터가 강세다.

또 레이어링 기법의 활용이 중요하다. 올겨울은 기온 변동이 빈번하고 폭이 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스마트하게 겹쳐 입는 방식을 통해 번덕스러운 날씨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구호는 베이지 컬러의 쇼트 다운 점퍼를 브라운 니트 카디건/스커트 셋업과 매치한 룩을 선보였다. 풍성

한 A라인의 쇼트 다운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H라인의 스커트를 조화시켜 실루엣 대비를 보여줬다. 또 에잇세컨즈는 컬러풀한 쇼트 패딩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흐르는 듯한 실루엣과 포근하고 편안한 촉감의 소재의 오버사이즈 코트로는 구호의 핸드메이드 로브 코트, 에잇세컨즈 캐시미어/울 혼방 코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빈폴멘은 편안한 착용감과 캐주얼한 무드를 강조한 경량 퀵팅 점퍼를 네이비, 머스터드, 올리브 등 다양한 컬러로 선보였다. 구호플러스는 최근 짧은 기장의 케이블 니트 카디건을 출시했다.

임지연 삼성패션연구소장은 “위드 코로나로 외출이 늘면서 이너에 집중되던 집콕 패션에서 벗어나 좀 더 갖춰 입으면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는 아우터의 선택이 중요해졌다”며 “올겨울에는 짧은 기장과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강세인 가운데 똑똑하게 레이어링하는 연출법을 잘 활용해보기 추천한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삼양식품-사르야, UAE 독점 공급계약 체결

“2023년 중동지역 수출 목표 500억”

삼양식품은 사르야제너럴 트레이딩사와 아랍에미리트(UAE) 독점 공급계약 및 중동 진출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UAE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계약에는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장과 압둘라 사르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르야제너럴 트레이딩은 아부다비를 거점 지역으로 한 사르야 홀딩스의 관계사로, 풍부한 자금과 유통망을 갖춘 채 소비자 수출입 및 유통을 하는 업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사르야는 북음면을 선호하는 UAE의 라면시장 특성을 감안해 올해 UAE에 수출된 한국라면 중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점유율을 2023년에는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UAE는 현재 삼양식품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지역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까르푸, COOP 등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왼쪽)과 압둘라 모하메드 헤탈 알 카비 사르야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식품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제품이 입점돼 있다. 또한,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에 입점된 삼양식품 부스에서 불닭볶음면 시식과 판매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후 삼양식품과 사르야는 시리아, 레바논 등을 중동 지역 내 전략 국가로 선정하고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삼양식품의 중동 지역 수출액은 25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 목표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원은미 기자

한미약품 “CCR4 항암신약, 종양 58% 줄여”

SITC서 임상 2상 케이스 소개

한미약품과 미국 랩트, MSD가 협업체 개발 중인 세계 최초 CCR4(C-C motif chemokine receptor 4) 타겟 면역항암신약(FLX475)이 해외 학회에서 우수성을 알렸다.

한미약품은 지난 12~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1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현재 진행 중인 FLX475 임상 2상 케이스를 소개하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발표된 임상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FLX475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렘브롤리주맵)’를 병용 투여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이다. 면역항암학회는 국내 10개 대학병원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이 임상을 ‘상당한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채택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의미있는 치료 효과를 보인 사례가 포함돼 주목받았다. 사전에 항암

치료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임상에 참여한 80세 위암 남자 환자에 FLX475와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했을 때, 6주치에 간에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58% 감소하는 부분 반응(PR)이 확인됐다. 임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안전성을 보여줬고, 부작용에 따른 복용 중단 사례도 없었다.

FLX475는 면역항암 효과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종양 내 이동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CCR4 단백질의 길항제 경구용 면역항암제로, 2019년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기업 랩트로부터 도입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도입한 세계 최초 CCR4 면역항암제의 임상 사례가 해외 학회에서 소개됨에 따라 환자들에게 혁신적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며 “임상 2상을 토대로 랩트 및 MSD 등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서식품, 맥심 향기로 어린이들 꿈 지킨다

‘맥심 사랑의 향기’ 행사 14회째 맞아
3억 7000만원 상당 문화자산 후원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송천초등학교의 음악 꿈나무들이 새 악기와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악기장, 오케스트라 단복을 깜짝 선물로 받았다. 경기도 이천 대서초등학교의 또 다른 미래의 음악가들도 플룻, 클라리넷, 트럼본 등 새 악기를 얻었다. 모두 동서식품의 문화·예술 나눔의 일환이다.



2일 인천 남동구 송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제14회 맥심 사랑의 향기 악기 기증식에서 최상민 동서식품 홍보상무(왼쪽)와 이영숙 송천초등학교 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활 속에 향기를 더 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 아래 동서식품이 펼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서식품은 특히 예술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있는 기관 중 나눔이 필요한 곳을 찾아 악기 등 문화자산을 후원하는 ‘맥

심 사랑의 향기’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악기와 음악실 개보수를 지원했다.

또 다른 사회공헌활동에는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이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꿈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동서식품이 도

서를 기증하고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지난해까지 충북 진천 상산초등학교와 인천 부평동초등학교, 창원 명도초등학교, 대전 서원초등학교가 선정돼 도서 2000여 권을 기증 받고 넓은 도서관 시설 및 교육 기자재 개보수를 받았다. /김서현 기자 seoh@

보로노이 MPS1 타겟 고형암 치료제 기술 수출

美 피라미드 1조 규모 계약

정밀 표적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약 1조원 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보로노이는 지난 1년간 미국에만 3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올렸다. 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

보로노이는 17일 미국 바이오테크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이하 ‘피라미드’)에 MPS1 타겟 고형암 치료제(V

RN08)를 총 마일스톤 8억 4600만 달러(약 9931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고 밝혔다.

MPS1은 세포주기 조절인자로 인산화효소를 억제할 경우, 암세포의 성장 과정에서 체세포분열 결함을 유도하여 암을 치료할 수 있다. 피라미드는 이 같은 기전(MOA)을 바탕으로 VRN08 치료제를 유방암 및 기타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하며, 추후 임상을 진행할 계획

이다. 이 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보로노이의 기술이전은 이번이 네번째이며, 미국 바이오업체 대상 기술수출만 벌써 세번째이다. 이번 MPS1 타겟 유방암 및 고형암 치료제 기술수출 8억 4600만 달러를 포함해 글로벌 기술수출 누적 총 마일스톤 금액 합계는 17억 9050만 달러로 약 2조 1000여억원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보령A&D메디칼

초음파 흡입기 ‘퓨어넵’ 출시

3.5미크론 크기 균일 분사

보령 제약관계사이자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보령A&D메디칼이 휴대용 초음파 흡입기 ‘퓨어넵(사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령A&D메디칼은 네블라이저 개발 및 제조 전문 글로벌 기업인 필라이프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공식 파트너로 국내 출시한 첫 제품이 ‘퓨어넵’이다. 보령A&D메디칼은 그동안 일본 A&D사의 측정기술을 기반으로 한 혈압계 판매에 주력해왔다.

네블라이저는 액체 형태의 약물을



기화시켜 폐에도달할 수 있도록 흡입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액이 세밀한 입자 크기(MMAD)로 균일하게 분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퓨어넵은 평균 3.5미크론의 입자 크기로 균일하게 약액을 분사한다. 약물이 호흡 및 허파파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입자 크기는 1~5미크론 이내의 범위다.

또 퓨어넵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듀얼모드를 탑재했다. USB 충전방식이며 경량 사이즈(109.5g)로 휴대가 편하고 소음이 적다. /이세경 기자